

우중행선(雨中 行禪), 걸음마다 환희만이...

노덕현 기자 | 입력 2021.10.11 16:35 수정 2021.10.11 21:59 댓글 0



상월결사 천리순례단, 12일차 순례 성료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지만, 순례단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여름의 끝을 알리는 비가 내린 10월 11일,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우중 행선(行禪)을 펼쳤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인 11일은 더위와 비, 그리고 추위가 교차하는 하루였다. 기상악화로 인한 어려움도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을 위해 발걸음을 이어가는 순례단의 의지를 꺾을 순 없었다.

천리순례단 지원단은 11일 새벽 부라부라 숙영지 텐트에 비닐을 덮었다. 일기예보에 잡히지 않은 비가 급작스럽게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0일까지만 해도 초가을 더위와의 악전고투가 이어졌기에 비소식은 당황스럽기 까지 했다.

부라부라 순례단이 대응에 나서자 거짓말처럼 비는 그쳤다. 다시 맞이한 아침, 숙영지인 캠핑장에 함께 있던 시민들과 기상 상황으로 다른 날 보다 취침시간이 좀 더 제공됐지만 순례단의 쌓인 피로는 감출 수 없었다.

마지막 남은 불보사찰 통도사를 향한 길이기에 순례단은 다시 힘을 냈다. 하지만 1시간여를 걸었을까, 첫 번째 휴식지인 후암1리에서부터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10월에 시작한 천리순례에서 늦은 비소식은 예기치 못한 것이었다. 2020년 7월 태화산 예비순례 때도 우중행선을 진행했지만, 당시에는 장마철임을 감안해 순례단 개개인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롭게 순례단에 참여한 이들도 많기에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다.

최신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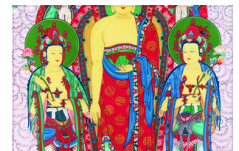
10.27법난 41주년...군학발 짓밟힌 스님 법석 봉행



유네스코 네트워크 뮤직페스티벌 폐막공



조계사 불화모임 화엄회 회원전 개최



박은아 강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사회 실천가대상



과천시약사회, 지역 내 독거 어르신 도시원



인기뉴스

- 절터 복원·명상...‘메타버스’ 빠진 불교
- 교학·후학양성 매진한 대강백 종광스님
- 조계종 최고 품계 대종사명사 품서식 봉
- ‘상월결사정신’ 청년포교로 전개
- 홍법사, 아미타대불 개금불사 회향



현대불교신문사



studio GONG

국제불교연합, 미얀마 코로니



12일차 숙영지인 우곡면에는 200여 불자들이 찾아 열띤 환영으로 환희를 더했다.

동화사 말사인 대견사에서 온 보리수 보살은 “지난 자비순례 이후 스님들과 순례단의 걸음걸음에 감동을 받고 있다. 사찰에서 신도들이 함께 자고 순례단을 맞이하기 위해 왔다”며 “천리순례의 원력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더 많이 퍼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해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 전등사 회주 장윤 스님, 관음사 주지 허윤 스님 등이 순례단을 찾아 격려했고, 동화사 회주 의현 스님은 10일에 이어 11일에도 순례단 숙영지 앞에서 마중을 나왔다. 또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주지 종우 스님 등도 오후 순례단 숙영지를 방문했다.



12일차 첫 휴식지까지 순례를 진행 중인 순례단. 11일차 숙영지에서 일반시민들 등을 고려해 이날 순례는 아침공양 이후인 7시 40분경 시작됐다.

이밖에 일일참여자들도 순례에 동참했다. 일일참여자로 참여한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은 “순례단에 합류하고 보니, 인도에서 부처님이 이웃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생각하게 된다. 이런 자리를 마련한 해공 자승 스님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노력하는지도 느끼게 됐다. 모두 함께 이웃을 위한 회향이 되길 발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순례에는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이 일일참여자로 참가했다.



12일차 순례를 진행 중인 순례단의 모습.



12일차 순례 회향은 불교 중흥을 발원하며 마무리 됐다.



일일참가자인 주호영 의원은 신발이 젖자 아예 신발을 벗고 순례를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자의 다른기사 >](#)

#상월결사 #순례단 #천리순례 #자승스님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순례, 가을과 함께 걷다
국민에 치유·희망 전한 화엄문화축제 성료

[삼보사찰 천리순례] 상월결사 순례단, 법보가치 되새기다
삼보사찰 순례, 문화와 더불어 중생과 호흡하다

21세기 새 결사 '상월결사, 천리순례 입재

[삼보사찰 천리순례] 韓불교 활력 불어넣는 희망

[삼보사찰 천리순례] 한국불교 순례사와 상월결사 순례 의미

[천리순례] 마음으로 밀고끌고, 천리걸음 가법다

천리순례, 영취산 넘어 '부곡' 도착

[포교콘서트]1. 불교중흥 위한 포교전당 열렸다

[포교콘서트] 3. "역량 결집, 새 포교 방안 마련"

상월결사, 호국성지서 '국난극복' 외치다

신심과 원력으로 재약산 사자평 넘다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천리순례 전야, 각계 격려 응원 이어져

[삼보사찰 천리순례] 한눈에 보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삼보사찰 천리순례] 삼보사찰 천리순례 불교적 의미

천리순례단 경북서 경남으로... 지역 주민 응원 이어져

[천리순례] 함께 해서 고독하지 않은 수행의 길

[포교콘서트]2. 대중 소통의장 "불교 호감 높이자"

사명대사 향훈 새기며, 정진 발원

호국성사앞에 펼쳐진 호국음악 한마당

삼보순례 자자, 참화와 중흥 기대 교차

이시각추천뉴스

국제불교연합, 미얀마 코로나 극복 자비나눔

세계 불교영화, 지역서도 선보인다

송광사 불교굿즈 '빨간 목탁' 서울서 만난다

僧匠 색난 조성 불상·진관사 태극기 '보물' 지정

“승가화합” 부재 94년 개혁... 종단 세속화 가속”

학교수업심리치유...코로나 극복 논의 '붐물'

연등회 기원 '빈녀난타품' 영상으로 만난다



국제불교연합, 미얀마 코로나 극복 자비 나눔

당신에게 추천하는 콘텐츠

by

AD

소유진 다이어트하고 살찌는 똥보균 박멸한 A양 화제

“미등록법인 도제 권리제한, 탈종단 가속화 부작용만”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AD

천리순례단 경북서 경남으로... 지역 주민 응원 이어져

문어두면 대박 날 주식, 50만원 있다면 "이것" 해라.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19. 스미 소니언 <지장보살도> ②

< >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주요기사





템플스테이 체험한 펭수, 묵언 수행에 성공했을까



광주시, 종교편향 논란 순례길 명칭 변경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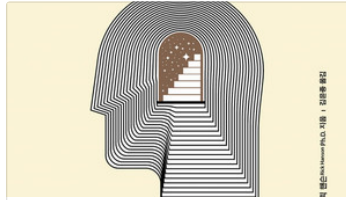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무문 흥법사 앞 도로공사 강제집행에 불상 '산산조각'



21세기 새 결사 '상월결사', 천리순례 입재



"불과 두 세달 명상만으로도 뇌 바꿀 수 있어"

현대불교

UPDATED. 2021-10-27 20:11 (수)

로그인 회원가입
비밀번호찾기 구독신청

☎ 제보하기

아이디찾기
불편신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오피스텔월드) 606
대표전화 : 02)2004-8200 | 팩스 : 02)737-0698
법인명 : 현대불교신문사
등록번호 : 서울 아 00332 | 등록일 : 2007-03-09
발행·편집인 : 조혜도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일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현대불교신문. All rights reserved.